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

송주은¹ · 박소미² · 노은하³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¹,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², 아주대학교 간호대학³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mong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Song, Ju-Eun¹ · Park, So Mi² · Roh, Eun Ha³

¹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Suwon

²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³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mong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with 12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utilizing 3 focus groups. After obtaining written informed consent from all participants, each session of the focus group was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Data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to identify major themes. **Results:** Four major themes for postnatal care experiences were extracted from the data as follows. 1) Range over traditional, modern, Korean or Chinese postnatal care, 2) Struggle with newborn care, 3) Another struggle with breastfeeding, and 4) Difficulties in becoming a mother as an immigrant. **Conclusion:** Based on their postpartum care experiences, it is concluded that participants requested more professional practical and individualized education/training for successful breastfeeding and newborn care. Health care providers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integrated support and mentoring programs that include information and peer support system for the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This would decrease the difficulties of becoming a mother.

Key Words: Emigrants and immigrants, Postnatal care, Focus groups,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산은 산모 개인 뿐 아니라 가족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발달기적 전환의 상황이지만, 아기의 출산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역할과 환경적 변화로 인한 많은 어려움은 가족적 위기의

상황이 되기도 한다[1]. 따라서 출산 후 산모를 적절하게 도와 성공적인 어머니로의 전환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결혼이민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산 후 이민여성들을 적절히 돕고 지원할 수 있다면, 이민여성의 성공적인 어머니 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출산 이후의 돌봄에 대한 수요자 입장의 기대와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출산과 산후조리는 문화적인 특성이

주요어: 이민, 초산모, 포커스 그룹, 질적 연구, 산후조리

Corresponding author: Roh, Eun Ha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164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 443-380, Korea.
Tel: +82-31-219-7018, Fax: +82-31-219-7020, E-mail: ek320@naver.com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4R1A1A1007686).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NRF-2014R1A1A1007686).

Received: Nov 23, 2015 / Revised: Mar 7, 2016 / Accepted: Mar 13,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강한 현상이므로[2,3], 한국에 이민하여 출산한 여성들이 산후 관리에 대해 어떠한 고유한 신념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한 산후조리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수요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인 이민여성의 산후조리 경험은 탐색될 필요가 있다. 중국인 이민여성은 한국과 함께 같은 아시아권 문화에 속해 있기는 하나, 출산은 문화적 현상으로서 민족이나 지방마다 특수한 신념이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 민족적 배경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2,3]. 또한 중국인 이민여성은 결혼이민여성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29.5%)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 다문화 여성 출산건수 14,198건 중 중국 여성의 출산율(28.8%)이 베트남 여성 출산율(37.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4], 이미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중요한 모성인구로서 간주되고 있다[5]. 따라서 중국인 초산모들의 어머니 전환과 적응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산후 모성적응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한 여건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도 중국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이 중국과 달라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산전 산후 관리 제공자가 중국 문화에 민감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6], 구체적으로 중국인 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후조리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일치하는 간호가 중요하며 개별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분석을 통한 문화적 돌봄 간호의 중요함이 강조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7],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여러 국적의 결혼이민여성들을 모두 포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8-10], 실제로 이민여성의 국적에 따른 고유한 경험과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의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Leininger[7]는 대상자의 문화와 일치하는 간호와 대상자 관점의 간호가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돌봄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그 표현이나 절차, 구조적인 형태나 패턴은 문화마다 다름을 강조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간호를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문화와 일치되는 간호가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며, 수혜자로 하여금 좋은 간호를 제공받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이민을 온 중국인 여성에게 만족스러운 산후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가 한국사회 속에서 어떠한 산후조리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수요자 맞춤형 산후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사료되는데,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주의 깊게 계획되어진 그룹 토의를 통하여 주제에 집중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다량으로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사전에 선정된 특수한 주제나 질문에 관한 질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11,12]. 이러한 이유에서 간호중재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파악을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사용되고 있는 여건이다[13,14]. 또한 특별히 산후조리의 경험 분석에 대한 양적 연구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연구도구가 부재하며, 또한 양적으로 분석되는 정보로는 중국인 이민여성의 산후조리 경험의 깊이 있는 이해증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에서 이미 중요한 모성인구로서 간주되고 있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인 이민 초산모가 한국에서 출산 후 어떠한 산후조리 경험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수요자의 중심의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로 이민한 중국인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포커스 그룹 구성

참여자 기준은 일 지역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중국인 이민여성 중 1) 최근 2년 이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경험이 있으면서, 2)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3) 연구참여에 동의한 중국인(한족, 조선족) 초산모이다. 참여자 모집은 다문화센터 팀장으

로부터 추천받은 주 정보제공자 1인으로 부터 소개받는 눈덩이 표출법을 실시하였다. 눈덩이 표출법을 선정한 이유는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풍부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5]. 포커스 그룹의 구성은 조선족 4명으로 구성된 1그룹, 한족 5명으로 구성된 2그룹, 한족 2명과 조선족 1명으로 구성된 3그룹으로서, 총 12명이었다. 포커스 그룹의 역동을 활용한 심층면담이 가장 적절할 수 있는 대상자 수로 권고되는 것은 6~10명 이내[11], 대상자들이 어린 자녀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아기를 동반하였고, 집단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돌봐줄 연구 보조원 2명이 동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한 방에서 집단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워 연구참여자의 수를 5명 이내로 유지하였다.

3. 연구자의 준비

연구 책임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 수강하였고, 다양한 질적 연구물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또한 대학원 과정과 학회 등에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질적 연구 작성의 표준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강의경험과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물의 출판경험이 있다. 또한 제 2저자는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에 대한 다수의 논문 작성과 출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제 3저자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적 연구학회 참여경험이 있다.

4. 자료수집 및 포커스 그룹 운영 절차

자료수집은 2015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주 정보제공자로서 추천받은 참여가능자에게 전화연락을 통하여 연구목적과 내용, 소요예산 시간 등에 대해 설명하여 전화 동의를 받은 후 포커스 그룹 진행 일정과 시간을 알리고, 포커스 그룹 당일에 다시 서면동의를 받았다. 또한 주 정보제공자로부터 소개 받아 참여한 대상자로 부터도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으며,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면담 당일 설명문과 동의서는 한국어 뿐 아니라 중국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모든 참여자가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동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터뷰 동안 간단한 다과와 차를 준비하여서 편히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 진행은 서로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의견을 제시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주 진행자가 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귀하의 모국에서 산후조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믿는 생각(문화적 신념)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귀하께서 한국에서 출산 후 어떻게 산후조리를 하였습니까?”, “한국에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게 느껴졌나요?”, “출산 후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돌볼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산후조리를 할 때 어떤 도움이 제일 필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고 싶었습니까?”, “한국에서 좋은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로 구성하였다.

인터뷰의 전 과정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진술이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을 하였다. 인터뷰 진행시간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었다. 연구참여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 언어능력에 따라 면담의 질이 결정되므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진행하는 사이에 진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중간에 질문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인터뷰를 종료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잘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AJIRB-SBR-MDB-15-105)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거나 면담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알렸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은 없을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진행의 목적과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안내하였고, 전체 연구의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종료 후 연구자료 보관기간이 지난 후 바로 파기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연구참여자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례금과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모든 면담을 종료한 후에 원하는 경우 개별면담과 상담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는 포커스 그룹 결과의 분석방법[12]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연구보조원이 필사한 후 필사된 자료의 정확성을 연구팀이 확인하였다. 둘째, 필

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장을 분석단위로 하여 연구의 주요 질문별로 의미 있는 진술들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으며,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과 표현 내의 주요한 내용을 분류하여 소범주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범주들을 통합하는 대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전 과정동안 현장노트, 디브리핑 노트, 녹음테이프, 녹취록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시행하여 결과를 다음 그룹의 자료수집에 활용함으로써 풍부한 자료수집 및 체계적이고 순환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 연구의 질 확보노력

질적 연구의 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5]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하여 인터뷰 동안 녹음기를 사용하고, 인터뷰 진행 사이에 진술된 내용을 연구자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간간히 질문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모든 인터뷰가 끝난 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고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의 전 과정 동안 현장노트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고, 연구물 필사는 인터뷰 직후에 바로 진행하였고 현장노트와 비교하며 인터뷰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 자료의 분석은 연구팀 내의 두 연구자가 각각 분석을 한 후, 결과를 비교하며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전 과정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보여주어 확인과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최종 분석된 연구결과물은 한국어가 능통한 참여자 1인에게 의뢰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이성(transferability)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대상을 포함하여 연구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충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성(auditability) 확보를 위하여 현장기록, 면접기록 등을 보존하고, 자료분석과 코딩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분석표와 일지, 메모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1.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3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참

여자는 12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산후조리 관련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참여자의 연령은 28~35세이고, 학력은 고졸 4명, 대졸 이상이 8명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9명이었고, 3명은 서비스업 종사자이었다. 첫 아이의 연령은 6개월에서 20개월이었고, 15개월 이하가 11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이의 성별은 여아가 5명이고 남아가 7명이었다. 한국내 거주기간은 2년부터 9년까지이었으며, 4년 이하가 11명이었다. 출산방법으로는 질식분만이 10명이었고, 수술분만이 2명이었으며, 산후조리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가 6명, 한국의 자기집 4명, 한국의 친정집과 중국의 친정집이 각각 1명이었다.

2.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은 전통적인 중국의 산후조리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식 산후조리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초산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주제 뿐 아니라, 외국인 이민자 어머니로서 느끼는 고유한 주제 등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은 4개의 범주와 13개의 하위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1) 범주 1.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아우름

(1) 전통방식과 현대식을 아우르는 몸의 보온

중국과 한국에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산후조리의 원칙이 있으며, 중국은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뽕뽕 싸매어 따뜻하게 한다는 신념이 있어 이러한 원칙대로 노력하긴 하지만, 전통식의 철저한 온도관리에서 보다 유연한 온도관리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복장, 환경관리, 음식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시원하고 바람이 통하는 복장과 환경의 허용, 그리고 때로는 시원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의 섭취 등을 한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산후조리원에서) 그런 것(산후음식이 따뜻해야 한다는) 가리지 않고 차가운 것 나오니까 산모들이 차가운 것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는 다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G3-P2)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애기 낳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있어요. 먹는 것도 따뜻하게 먹고 찬 것 먹으면

Table 1. Information of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 No.	Ethnic background	Age (year)	Education	Occupation	Baby's age (month)	Baby's sex	Staying in Korea (year)	Delivery method	Postpartum care place (weeks)	Postpartum caregiver	Other
G1-P1 [†]	Korean-Chinese	29	High school	Yes	10	Female	4	c/sec	Sanhujoriwon (2), and then own house (3)	Sanhujoriwon / mother	-
G1-P2	Korean-Chinese	28	High school	No	8	Female	3	NSVD	Sanhujoriwon (2), and then own house (3)	Sanhujoriwon / mother-in-law	-
G1-P3	Korean-Chinese	29	College	No	7	Male	3	NSVD	Own house (4)	mother & mother-in-law	-
G1-P4	Korean-Chinese	32	College	No	9	Male	3	NSVD	Sanhujoriwon (2), and then own house (2)	Sanhujoriwon / mother	-
G2-P1	Chinese	31	High school	No	14	Male	2	NSVD	Own house (8)	mother	-
G2-P2	Chinese	29	Graduate school	Yes	9	Male	2	NSVD	Sanhujoriwon (3), and then own house (1)	Sanhujoriwon / husband	-
G2-P3	Chinese	30	College	No	7	Female	2	NSVD	Parent's house in China (4), and then own house (2)	mother / mother-in-law	Living with mother-in law
G2-P4	Chinese	35	College	Yes	20	Female	3	NSVD	Own house (8)	mother / postnatal helper	-
G2-P5	Chinese	28	High school	No	13	Male	2	NSVD	Own house (4)	mother-in-law	-
G3-P1	Chinese	34	College	No	6	Female	3	NSVD	Sanhujoriwon (2), and then own house (2)	Sanhujoriwon / postnatal helper	-
G3-P2	Chinese	28	College	No	15	Male	9	c/sec	Sanhujoriwon (2), and then own house (2)	Sanhujoriwon / mother	-
G3-P3	Korean-Chinese	29	College	No	13	Male	2	NSVD	Parent's house in Korea (8)	mother	Family-of-origin immigrant

[†] G: number of focus groups, P: number of participants

Table 2. Analysis of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nd Needs among First Time Mothers of Chinese Immigrants

Categories	Sub-categories
Range over traditional, modern, Korean or Chinese postnatal care	Put together traditional and modern temperature management Selective Combine Korean and Chinese diet for postnatal care Some experience the benefits of postnatal care of modern Korean styles. Keep minimum period of Chinese postpartum care using various Korean care benefits
Struggle with newborn care	Difficulties due to insufficient know-how in newborn care Run into trouble while taking care of newborn alone Inconvenience due to lack of skill training for newborn care
Another struggle with breast feeding	Experience breast pain which can be worse than labor Much effort and worry over breast feeding Increased difficulty in breast feeding due to insufficient individualized support
Difficulties in becoming a mother as an immigrants	Loneliness as a mother on the border Stifling due to Korean information in child rearing Fretting for continuous mentor to be a good mother.

안 되고 머리도 안 감고 바깥도 안 나가요. 한 달간...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는 한 두달 동안 바람을 피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목욕하지 말고 양치도 하지 말고 침대에서 그냥 쉬는 것은 못 따랐어요.(G2-P4)

한국에 조리원 다녀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있어요. 시원해요. 그렇게 덥지 않아요. 산후조리원 2주 후에 집에 와서도 친정 엄마 말처럼 뜨겁게 있지 않고 선풍기 틀고 있었어요.(G1-P1)

(2) 양국 산후보양식의 선택적 혼용

참여자들은 산후회복을 위해서 한국식 산후조리 음식인 미역국과 밥을 산후 음식으로 섭취하였다고 하였으며, 중국식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산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에 따라 한국식 산후조리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의 신념에 따라 모유를 늘리기 위한 특별보양식을 선택적으로 섭취하기도 하였다고 하여, 양국의 산후 보양식을 선택적으로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식 음식을 산후조리원에서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면 안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냥 한국식 산후조리음식을 먹으라고 해요. 마음으로는 중국식 산후조리 음식 기름진 것을 먹고 싶는데 기름이 너무 많아져서 몸에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한국식으로 미역국과 밥 열심히 먹었어요.(G2-P2)

(특별히 중국식 음식을 섭취하였냐는 질문에) 모유수

유를 위해 거위 알, 돼지족, 잉어, 가물치, 두유를 매일 먹었어요.(G1-P3).

젖이 안 나오면 죽발을 그냥 고아서 먹고 죽발이나 잉어 그런 걸 고아 먹었어요.(G2-P4)

(3) 현대화된 한국 산후조리 문화 혜택을 누림

중국인 이민 초산모들은 한국에서 출산 후 한국의 자기집이나 친정(한족은 중국 친정, 조선족은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한국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도 하였지만, 산후조리 장소로서 중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같은 한국내의 현대화된 전문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후조리를 돕는 주된 조력자는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산후조력자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산후조리를 받거나, 한국내의 새로운 산후조리 지원인력인 산후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중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자기집안 애니까 봐줘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안 봐주고... 그래서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었다가 집에 와서... 혼자 할라니 힘들어서... 2주 정도 엄마가(중국에서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봐주셨어요.(G3 (한족)-P2)

왜냐면 시집을 간 것이니까 애기 낳아도 그 맥의 사람이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봐주는 것이 의무니까요... 근데 여긴 아니라서(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

니) 산후도우미가 도와줬어요(G2 (한족)-P4)

저는 집에서 했어요.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가 2주씩 바뀌가면서(조리해주셨어요)... 산후조리라고 하면 친정엄마가 웅당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친구들은 산후조리원 갔는데) 한국의 산후조리원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시원하고 한데요... 중국은 그런 것 잘 이용안하고 비싼데, 여긴 좋아요.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 가고 싶어요.(G1 (조선족)-P3)

(4) 다양한 한국적 산후조리방법을 이용한 모국의 전통적 산후기간 지킴

산후조리 기간으로서 중국 초산모들은 전통적으로 한 달간의 산후조리를 하는 중국의 신념을 고수하기 위하여, 최소 4주의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에 대한 개인적 기대와 조력 여건에 따라 4주를 넘어서 다양한 산후조리 기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하고(조선족)친정엄마가 2주씩 바뀌가면서 조리해주셨어요. 4주는 해야겠더라고요.(G1-P3)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산후조리원 갔는데 한국은(중국보다 산후조리 기간이) 짧아요. 산후조리원 2주 있다가 나와서, 집에 갔는데 산후도우미를 불러서 2주 더 조리 했어요.(G3-P1)

중국은 한 30일정도 산후조리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보통 한 달 정도 봐 주거든요, 근데 저는(가족전체가 이민을 와서) 아예 한국 친정에서... 4개월 동안 조리했어요.(G3-P3)

2) 범주 2. 아기 돌보기로 고군분투함

(1) 아기 돌보는 기술부족으로 당황하고 힘이 듭

참여자들은 아기돌보기를 잘 하고 싶지만,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처음 아기를 보기 시작할 때 많이 당황하였으며, 이후에도 아기 돌보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좋은 엄마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기에게 정말 잘 하고 싶은데(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잘 하는지(잘 하는건지) 몰라서 힘들어요. 처음 아기를 안으라고 하니까 아기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안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무서워요. 어떻게 안아주어야 하는지 당황되(었

어)요(G2-P2)

애기가 왜 우는지 몰랐을 때? 막 우니까.. 아픈지 배고픈지, 똥싸는지 모르니까.. 힘들었죠. 그 시간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우는 것도 있고 아기랑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씻어주는지도 모르고.. 어떨 줄(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요.(G3-P2)

(2) 혼자 아기 돌보기로 벽에 부딪힘

참여자들은 특별히 적극적 산후조리 기간이 지나고 산후조력자가 없이 혼자서 아기를 돌보게 되면서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누구 도움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애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넘 힘들었어요. 잠깐이라도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잠이라도 푹 자보고 싶었어요. 눕으면 깨고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했고 밤에 깨서 울 때면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르고 옆집 시끄러울까봐 안고 한 두 시간씩 달래곤 했어요.(G1-P3)

혼자 볼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애를 봐야 하니까 내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하니까 우리혼자 애를 봐야 하는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G1-P1).

초기에는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막막하고, 정말 힘들었어요.(G2-P5)

(3) 비 체험형의 돌보기 교육에 대한 아쉬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초산모의 경우는 말로 해주는 신생아 돌봄 교육을 받긴 하였으나, 실제로 퇴원 후 혼자 아기를 돌볼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가 참여하여 직접 해보는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목욕해 줄 때 어떻게 하는지 교육 받았는데 그 교육은 그냥 대충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빨리 말하고 끝난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아기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만 해주지 말고 실습도 하면서 책임지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말만 하지 말고... 목욕뿐 아니라 다른 육아 정보도...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고 혼자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직접 우리 아기 실습하면서 가르쳐 주면 겁 없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G1-P1)

3) 범주 3. 또 다른 산고인 모유수유

(1) 진통보다 더 심한 젖몸살

참여자들은 산후에 젖몸살로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아기 낳는 고통만큼 심했다고 하였다.

아기 낳는 것은 정신이 없이 아프고 애기 태어났다고 해서 잊어졌어요. 근데 모유수유 하는 것은... (유방이) 너무 아팠어요. 애기 낳는 것보다도 더 아팠어요.(G2-P4)

젖꼭지도 아픈데 저는 항상 여기기(유선이) 막혀서... 아팠던 것 같아요.(G2-P1)

집에 와서 젖이 뭉쳐서 젖몸살 와서, 친정 엄마는 다른 사람이 풀려고 하면 너무 아프다고 혼자 짜보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만지니까 살살 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 와서 밤에 혼자 짜는데 아프더라고요.(G1-P2)

(2) 모유수유를 위해 애태우고 발버둥 치

참여자들은 모유수유를 성공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어떻게 하면 모유수유를 성공할지에 대해 애태우고 고민한 내용을 서로 표현하였다.

산후 3일째부터 정식 수유 시작할 때 아예 안 잤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콜 할 때마다 나가서 주었어요. 새벽 4시던지 5시던지 상관없이 잠을 설치면서 병원에서 시작할 때부터 3일부터 모유수유 시작하는데 처음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빨 때는(젖이 잘) 안 나오지만... 안 나와도 전화 올 때 마다 가서 빨게 했어요.(G1-P1)

산후조리원에서(모유수유)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사지도 하고 해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아기가) 감기 걸려서 모유를 주지 말라기에 3일 동안 잤는데 양도(이) 줄어요. 그래서 속상하고...(G1-P3).

(3) 개인요구에 맞는 지지부족으로 가중된 어려움

모유수유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모유수유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힘든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다. 특별히 참여자들은 모유수유를 원했지만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분유를 먹이는 바람에 유방의 울혈은 심해지고 아기는 분유에 적응하여 수유의 혼란을 경험했다고 하며, 시기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있었다면 좀 더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자신의 유방과 모유분비 상태나 수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신생아 상태 등이 다른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몰라서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하여, 상황에 맞는 개인적 수유관리가 필요함을 표현하였다.

나중에 산후도우미가 말해주는데 마사지 받아서 유선을 뚫어야 한다는데... 그 때(처음 모유수유 시작할 때) 지식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몰랐어요. 모유수유 하려고 잠도 못자고 자주 먹고 엄청 노력하면서 하루에 한번 정도(만) 분유 수유했고요... 근데(출산) 병원에서부터 분유 먹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몰랐던 게 아쉬워요. 그 때 알려주는 분만 있었어도... 뭐가 뭔지 몰랐던 거 같아요.(G1-P3)

젖먹이는 교육을 받았지만 저도 솔직하게 젖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축하면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잘 나오던데, 난 왜 그런건지... 내 상태에 따라 알려주는 사람 필요해요.(어찌할 바를) 몰랐어요.(G1-P4)

4) 범주 4. 이민자로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어려움

(1) 경계인 어머니로서의 외로움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양육 정보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조모임 맘카페에 참여하고 싶으나, 현재는 한국인 엄마들의 카페 밖에 없어서 그곳에 활동하게 되면 댓글을 통해 외국인의 어투가 발견되고 한국 엄마들의 불편한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는 느낌을 가진 참여자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외국인 맘들로 구성된 외국인 맘카페 같은 자조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런 공간(조선족들끼리 소통하는 공간)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사이트 보면 우리가 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댓글 달아봤자 욕만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서 무슨 맘 모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댓글을 달을 수가 없어요. 괜히 무시 받는 것 같고, 조선족들끼리의 맘카페 같은 거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G1-P2)

남편은 나가고 혼자서 아기와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말 한 마디 못하고 아기만 보는 거죠. 아기가 울고 보채도 도와주거나 말 걸 사람이 없으니 중국친구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도 저도 아니예요. 너무 서럽고 외로웠어요.(G1-P3)

(2) 언어장벽으로 인한 양육정보에 답답해 함

산모들은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게 되지만 주로 한국어로 된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으며, 일반적인 양육정보뿐 아니라 공공보건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등도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적절한 정보를 찾는 것도 어렵다고 하였다.

필요한 정보는 모두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산후도우미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유용한 내용은 다 한국어로 써 있어서(이해 못하는 것은) 맨날 남편한테 물어보고, 남편도 일이 많고 힘들고 하니 귀찮아하잖아요.(G3-P1)

임신 한 후에 어디서 검사하는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꺼번에 알려 주었으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찾을 수 있고, 출산 후에도 아기한테 몇 개월에는 어떤 검진을 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맞아요. 저흰 잘 몰라서,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내용은 많지만 이해가 어려워요.(G3-P2)

(3) 좋은 엄마가 되고픈 지속적 도움에 대한 갈급함

양육에 대한 질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또 시기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낄 때 간단히 구두로 전달하는 식의 교육을 받아 실제 자신의 아기를 돌볼 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아기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양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교육을 거기서 하지는 않고... 그냥 어느 시기에 이유식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을 산후조리원 들어왔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해주세요. 몇 개월에는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정도라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정말 해야(배워야) 할 시기에는 교육해 주는 곳이 없어요. 아기상태에 맞는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G1-P2)

논 의

본 연구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를 위한 산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들의 산후조리 경험을 근간으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관리 경험은 총 4개 범주와 13개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4개 범주는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아우름(범주 1)”, “아기

돌보기로 고군분투함(범주 2)”, “또 다른 산고인 모유수유(범주 3)”, “이민자로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어려움(범주 4)”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민자의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범주 1과 범주 4에 대해서는 각 범주 내에 포함된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국적을 막론하고 초산모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분석된 범주 2와 범주 3에 대해서는 범주의 차원에서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범주는 온도관리, 음식섭취, 산후조리 시설과 조력자,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의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를 아우르는” 산후조리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한 제1주제는 “전통방식과 현대식을 아우르는 몸의 보온”으로 분석되었다. 산후조리에서 온도관리는 매우 중요한 산모관리의 원칙 중 하나로서[2], 한국과 중국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16], 특별히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더욱 더 철저한 온도관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하게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전통식의 쫄면과 떡볶이 등 무조건 찬 것을 피하는 철저한 온도관리 보다는 시원하고 바람이 통하는 복장과 환경의 허용, 그리고 때로는 시원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의 섭취 등을 통하여 복장, 환경, 음식 등에서 보다 유연한 온도관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참여자 12명 중 6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산모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절대적인 보온만을 강조하지는 않는 현대적 산후조리 분위기[14]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주 1의 두 번째 주제는 “양국 산후보양식의 선택적 혼용”으로 분석되었다. 산후보양식의 섭취는 산후조리의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데[2], 중국과 한국 모두 산후회복과 모유수유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고 자극적이거나 찬 음식을 피한다는 신념이 있으며[16,17], 한국의 경우는 미역국을, 중국의 경우는 기름진 탕을 위주로 산후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6].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초산모들은 주로 한국식의 미역국과 밥을 위주로 기호와 입맛에 맞게 제공되는 다양한 한국식 산후음식을 섭취하였으며, 특별히 모유의 양을 늘리는 등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중국식 산후조리 음식인 거위알이나 돼지족 등과 같은 전통식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후조리의 음식섭취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양국 산후보양식을 선택적으로 혼용하였고,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중국인 이민 초산모

의 산후조리 경험은 국가 간, 문화 간의 문화접변 혹은 문화변용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두 사회가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18], 본 연구에서는 산후조리의 여러 측면에서 양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접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범주 1의 세 번째 주제는 “현대화된 한국 산후조리 문화 혜택을 누림”으로서, 참여자들은 특별히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와 같은 현대화된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의 혜택을 누린 것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전통에 의하면 산후조리는 친정어머니의 몫이며 출가외인으로 인정되던 딸이 합법적으로 친정에 머물면서 정성껏 친정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는 전통이 있으나[2], 이러한 전통은 한국사회 내에서도 이미 변모하고 있어서, 산후조리원과 같은 전문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여건이다[17]. 반면 중국 한족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로부터 산후 돌봄을 전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리고 조선족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에서 친정어머니로부터 산후조리를 받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19], 중국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산후조리가 일반적인 여건이다[6].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자기 집에서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로부터의 전통적 산후조리를 받기도 한 반면, 한국의 근대식 산후조리 시설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에서 산후조력자로서 산후도우미와 같은 현대식의 산후조리 인력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 장소와 산후조력자에 있어서도 여건에 따라 탈 전통식의 산후조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본 연구참여자 중에는 한국의 현대식 산후조리원을 좋은 산후조리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이용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히 모유수유에 있어서 산후조리원 체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뿐 아니라 이민여성의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원 이용경험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향후 연구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 1범주의 4번째 주제는 “다양한 한국적 산후조리방법을 이용한 모국의 전통적 산후기간 지킴”으로 분석되었다. 산후조리 기간 역시 매우 중요한 산후조리의 내용 중 하나로서[2],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삼칠일 즉, 출산 후 3주 동안 금줄을 치고 산모와 아기를 외부와 분리하여 절대적으로 휴식과 모성적응을 돕는 시간을 강조한 반면[2], 중국의 경우는 한족과 조선족 모두 최소 한 달의 산후조리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데[1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두 최소 한 달간의 산후조리 기간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산후조리도 삼칠일로는 부족하며 보다 연장된 산후조리 기간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어 탈 전통적인 측면이 있는데[17], 이러한 여건은 중국인 초산모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출산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여권상승에 따른 충분한 휴식과 회복 등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사회 분위기[14]가 이민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범주를 요약하자면, 중국인 이민 초산모들은 출산 후 특별히 온도관리와 음식, 산후조리 장소와 산후조력자, 산후조리 기간 등의 측면에서 전통과 현대, 모국과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아우르는 산후조리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돌봄을 중국식이 아니어서 불편하고 어렵게 느끼기 보다는 한국의 문화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산후조리는 문화적 현상이며[2], 문화적 신념에 부합하는 간호제공이 가장 만족스러운 간호라는 문화간호적 입장과, 문화에 대한 무지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감소시킨다는 Leininger의 설명을 고려할 때[7], 중국의 산후조리에 대한 문화적 신념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사회 내에서의 산후조리 경험에 대한 동시적인 이해가 되어야 수요자에게 만족스러운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범주 1은 의의가 크다고 보는데, 연구시작 시 본 연구팀은 중국인들이 중국적 산후조리를 갈망하며 어려움이 클 것을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연구결과, 한국식의 현대적 산후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국 산후조리 문화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등은 출산 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한국사회의 문화를 알려주며 초기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내 적응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창구의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이민 초산모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도모하는 좋은 체계로서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산육기 초기에 산후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에게 문화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범주 중 네 번째 범주는 “이민자로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어려움”으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범주라고 사료되어, 범주 2와 범주 3에 앞서 논의하고자 한다. 제4범주에 속한 1주

제는 “경계인 어머니로서의 외로움”으로서, 한국에 이민 온 중국인 초산모들은 한국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받고 어머니로서 적응을 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그로 인한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비록 중국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 외롭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음을 설명한 선행연구[9]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 체계로서 자국민을 활용한 산후도우미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자국민 상호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멘토링 시스템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여 정서적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후조리원 내의 인력이나 산후도우미들이 한국사회 내 적응의 촉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이므로, 이들이 이민자에게 보다 질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4범주의 2주제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양육정보에 답답해함”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언어적 어려움을 이민자 어머니로서의 문화적응 및 모성적응의 주요한 관련 요인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6]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이민여성이 출산 후 어머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어머니 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동영상이나 교육자료 등의 다양한 교육적 매체 개발을 포함하는 교육적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4범주의 3번째 주제는 “좋은 엄마가 되고픈 지속적 도움에 대한 갈급함”으로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제공되는 지속적인 교육과 도움에 대한 갈급함을 호소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하는 다양하고 질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는 한국사회 내에서 문화적응을 촉진함과 동시에 양육적 어려움을 완충하는 요인으로서 설명된다[20].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육적 요구와 어려움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지지와 도움은 출산 직후의 산후조리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어머니들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이민자 친화적인 지역 사회 양육지지 환경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요약하자면 제 4범주로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육 관련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양육 멘토링 체계의 구축과, 특별히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종합적인 양육지원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호 지지를 통해 외로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자국민) 맘 자조모임이나 자국민 시스터 제도 등이 활성화 전략 등을 적극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를 위한 체계적인 산후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의 두 번째 범주와 세 번째 범주는 대부분의 초산모들의 중요한 경험의 범주로서 분석되었다. 먼저 두 번째 범주는 “신생아 돌보기로 고군분투함”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출산 후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아기 돌보는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당황하고 힘이든” 경험을 호소하였으며,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은 적극적 산후조리 기간을 지나고 산후 조력자가 없이 “혼자서 아기를 돌보는 시기에 보다 심화되어 벽에 부딪히는 막막함”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혹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된 아기돌보기 교육은 대부분이 비 체험형의 일 방향적인 교육이 많아서 “비체험형의 돌보기 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한국인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초산모의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신생아 돌봄의 어려움을 보고한 것[14]과 유사한 결과로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산모에게 있어 신생아 돌보기의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첫 출산은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초산모는 비로소 어머니가 되면서 신생아 돌보기를 시작하게 되고, 다양한 양육 스트레스와 역할긴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되며[1,21],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육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명된다[20].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사회적 지지이며, 또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어머니 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22]. 따라서 신생아 돌보기는 모든 여성에게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특별히 이민 초산모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사회 이민 초산모들을 위해 신생아 돌봄과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활성화와 언어적 어려움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겠다. 특별히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서 질적 인터뷰 수행 시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전달된 설명식의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러

한 방식의 교육이 거의 유용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한국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산모교육 시 말로 전달하는 교육이 유용하지 못하여 실습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23], 언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이민여성에게 더욱 더 실습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한번의 실습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없으므로 반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매체의 하나로서, 중국인 이민 초산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신생아 돌보기 내용에 대해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반복하여 보며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교육매체를 개발하고, 모국어 더빙을 하거나 모국어 자막을 넣어주는 식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매체의 개발이 적극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세 번째 범주는 “또 다른 산고인 모유수유”로서, 중국인 초산모들은 출산 후 “진통보다 더 심한 젖몸살”로 고생한 경험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교육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또한 모유수유를 잘 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고 휴식하지 못하면서 “모유수유를 위해 애태우고 발버둥치는” 경험을 하였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도와주는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도와주는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개인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지부족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모유수유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인 초산모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에서도 가장 흔히 보고되는 문제로서[6], 본 연구를 통하여 이민 초산모 역시 출산 후 어머니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심과 관리의 범주가 모유수유 관련 내용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초산모의 경우는 수유를 위해 밤잠을 설치고 휴식을 방해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신생아 실을 오가는 수유경험이 매우 힘들었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초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르쳐 주는 시기적절한 전문가 도움이 절실했다고 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 이용자의 경우도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는 모유수유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전문 산후도우미의 경우 음식과 환경관리 위주의 도움을 받아 모유수유 관련 전문적 지지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초산모와 같이 이민자 초산모의 경우도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전문적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되, 그들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상담이나 교육 및 지지체계의 마련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질적 연구의 특성 상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대상만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함

으로 인하여 연구참여자의 특성이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에서 출산을 경험하고, 실제로 산후조리를 받아온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이민자의 한국 내 산후조리 경험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한 점과, 특별히 이들의 초기 경험에 근거하여, 향후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출산 후 수요자 맞춤형 산후 모성적응증진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중국인 이민 초산모의 산후조리 경험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이민 초산모는 전통과 현대,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아우르는 산후조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으로 산관자로 부터의 도움을 받는 산후조리 시기뿐 산관자로 부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사라진 이후의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신생아 돌봄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며, 특별히 모유수유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로서 한국사회 내에서 출산과 양육을 하는 과정 동안 한국어로 된 양육정보로 인한 언어적 어려움과 경계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느끼지만 끊임없이 좋은 어머니 됨을 위한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인 이민 초산모를 위한 실제적인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시기적절한 간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특별히 이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역사회 지지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과 함께,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할 때 이민 여성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배려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Song JE, Park BL. The changing patter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maternal adjustment between primiparas who used and those who did not use Sanhujori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4):503-514.
2. Yoo EK. Health promoting behavior for women's health: An analysis on meaning of Sanhujori, Korean postpartum car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1993;2(2):37-65.
3. Hung P. Traditional Chinese customs and practices for postnatal care of Chinese mother. *Complementary Therapies in*

- Nursing & Midwifery. 2001;7(4):202-206.
4. Statistics Korea. The status of immigrants in 2014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5 Nov. 18].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5. Song JE, Roh EH, Park SM.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among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21(1):55-70.
 6. Kim SH.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2;16(2):170-185.
 7. Leininger MM. Leininger's theory of nursing: 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88;1(4):152-160.
 8. Chung CS. Pregnancy, delivery and cultural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dissertation]. Busan: Inje University; 2011.
 9. Kim EH, Park HS, Bae KE. Conflict experienc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Qualitative Research*. 2012;13(1):66-78.
 10. Kim TI, Kwon YJ, Kim MJ.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2;18(2):85-97.
 11. Kim SJ, Kim HJ, Lee KJ, Lee SO. Focus group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sa; 2000.
 12. Krueger RA.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Focus group kit). New York, NY: SAGE Publications; 1997.
 13. Song MR, Lee YM, Cheon SH. An analysis of the meaning of respite for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4):482-492.
 14. Song JE, Chae HJ, Park BL. Experiences of Sanhujori facility use among the first time mothers by the focus group interview.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5;21(3):184-196.
 15. Lincoln YS, Guba EG.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5.
 16. Bae GM, Cho HS, Lee IS. The review of postpartum care beliefs and practices according to the cultures.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009;22(1):231-242.
 17. Kim YJ, Chung MR. A study on the change of postpartum care in Korea. *Asia Culture Research*. 2012;26:217-240.
 18. Kang JW. Tradition and changes of medical culture in Korean-Chinese at Myeongseong village. In: BK21 Plus Team Graduate School of Folklo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editors. *Folklore and folklife of the Korean-Chinese at Myeongseong village*. Seoul: Minsokwon; 2015. p. 85-112.
 19. Kang HS. Sustenance and change of the Korean-Chinese parenting knowledge. In: BK21 Plus Team Graduate School of Folklo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editors. *Folklore and folklife of the Korean-Chinese at Myeongseong village*. Seoul: Minsokwon; 2015. p. 113-130.
 20. Kim HS, Oh KS, Shin YH, Kim TI, Yoo HN, Sim MK, et al. Factors influence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5;11(3):290-300.
 21. Mercer RT. Nursing support of the process of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006;35(5):649-651.
 22. Kil YS. A study on child-rearing experience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infant children [dissertation]. Seoul: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12.
 23. Chae HJ, Kim S. Effects of maternal role practice education on becoming a mother.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1):52-63.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Mothering is a difficult situation for first time mother. Moreover, it is more complex mothers are immigrants in a host country.

■ What this paper adds?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mong the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Also needs for support for postnatal care were explained.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mmigrant mother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with more culturally friendly, practical and individualized manner especially for successful breastfeeding, newborn care and further child-rearing issues.